

『一切經音義』 소멸 어휘 연구*

황신애**

<目 次>

1. 들어가기
2. 『一切經音義』 속 일반어휘 중 현대 소멸된 어휘 고찰
3. 『一切經音義』 속 일반어휘의 소멸 原因 小考
4. 나오기

1. 들어가기

東漢 말엽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魏晉南北朝 시기를 거쳐 隋唐 시기에 이르러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隋唐 시기에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 문헌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대대적인 譯經사업이 이루어졌는데, 譯經 과정에서 佛經에 나오는 용어의 음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佛經音義書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佛經音義書는 풍부한 어휘자료를 보유한 불경음의사전으로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고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佛經音義書를 통해 다양한 어휘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어휘의 구성 중 佛經音義書에 수록되어 현재까지 사용되는 계승어휘와 수록된 어휘가 현대로 오면서 사용되지 않는 소멸 어휘를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佛經音義書의 대표문헌으로 볼 수 있는 『一切經音義』를 중심으로, 『一切經音義』에 수록된 어휘들 가운데 당시에는 활발히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4166).

본 논문은 2015년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서울신학대학교 중국어과 부교수

않는 소멸된 어휘들을 살펴보고, 이 어휘들의 당시 사용상황과 소멸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一切經音義』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어휘들을 경전별로 나열한 뒤 생소한 산스크리트어 음차자의 음과 뜻을 번역해 기록하고, 난해한 어휘나 어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音義를 달아 풀이한 뒤 용례를 정리해 놓은 불교용어 사전이다. 『一切經音義』는 唐代 말엽 현응(玄應)이 저술한 25권(644년)과 혜림(慧琳)이 저술한 100권(807년) 및 희린(希麟)이 저술한 『續一切經音義』 10권(960~1127)이 있다. 『一切經音義』는 방대한 양의 어휘를 수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각종 문헌을 좌증 자료로 삼아 어휘의 어원 및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¹⁾, 어휘의 사용상황을 통해 한어어휘의 전승과 소실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어휘의 전승과 소실은 현대한어의 맥락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며, 이는 어휘의 의미장 변화를 통해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한어어휘체계의 기본 골조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본고에서는 『一切經音義』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현대로 오면서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소멸된 어휘를 중심으로 당시 사용상황을 살펴보고, 소멸된 어휘의 특징과 소멸과정을 통해 현대한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은 『一切經音義三種校本合刊』²⁾을 저본으로 삼고, 모든 예문과 용례는 北京大學 語料庫(이하 北大 語料庫)(<http://ccl.pku.edu.cn>)에서 선별한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음을 밝혀둔다.

2. 『一切經音義』 속 일반어휘 중 현대 소멸된 어휘 고찰

『一切經音義』 속에 출현하는 어휘 중 일부어휘는 현대에 이르러 그 의미를 찾을 수 없거나 문어체 속에만 보존되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때로는 어휘자체가 소멸되어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어휘는 시대에 따라 생성-사용증가-사용감소-소멸의 과정을 거치며 변화한다. 어휘의 사용감소나 소멸과정은 다양한 경

1) 『一切經音義』 속 어휘의 변화 양상 연구, 中國學論叢 제46집.

2) 徐時儀 校注, 『一切經音義三種校本合刊』, 上海古籍出版社, 2012.

로 나타나는데, 본장에서는 『一切經音義』 속에 출현한 어휘 중 후대로 오면서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소멸되어 사라진 어휘를 살펴보고자 한다.

*爲作

‘爲’와 ‘爲’는 通假字로 『禮記·檀弓下』에 보면 “夫子爲弗聞也者而過之.”(공자가 못 들은 체하고 지나가다.)라 하여 ‘거짓이나 가식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헌상에 ‘爲作’는 ‘조작하다. 고의로 꾸며내다’의 의미를 지니는데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1] “豕俛仰嘍啾，爲作容聲，司原愈益珍之.”(漢·王符·『潛夫論·賢難』) (돼지가 사람을 쳐다보며 모습과 소리를 짓자 사원은 더욱 진귀하게 여겼다.)

[예2] “其文辭類『莊子』，而尤質厚，少爲作.”(唐·柳宗元·『辯』) (그런 문사류의 『장자』는 더욱 소박하고 담백하여 억지로 꾸며냄이 적다.)

[예3] “那婆娘打扮來便似女孫，全不似好人家苗條，上墳處說不盡喬爲作.”(元·無名氏·『替殺妻』) (그 아내는 꾸민 것이 기생 같고, 모든 것이 양가집 부녀 같지 않았으며, 성묘할 때도 가식적인 행위를 이루 말할 수 없다.)

[예1]~[예3]을 보면 ‘조작하거나 고의로 꾸며내다’의 의미를 지닌 ‘爲作’는 漢代 용례가 보이고 唐代에 이어 元代에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모두 가식적으로 꾸며내거나 억지로 꾸며내는 행위에 사용되었다. ‘爲作’는 ‘가식적으로 하는 행위’ 외에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예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예4] “吾誓得佛，普行此願，一切恐懼，爲作大安.”(『大寶積經』³⁾) (나도 맹세코 부처님 되어 두루 이러한 서원 행하고 두려움 많은 중생 위하여 편안한 의지처 되리라.)

[예5] 冬月無複衣，戴顓聞而迎之，爲作衣服，並與錢一萬。(『南史』⁴⁾) (겨울에 두꺼운 옷이 없는 걸 戴顓가 듣고서 그를 데려와 옷을 해주고 일

3) 唐의 보리유지(菩提流志)가 번역함.

4) 『南史』: 중국 당나라의 이연수가 지은, 남조의 남송, 제, 양, 진 네 나라의 역사책.

만 금을 주었다.)

[예6]“使佛生於中國，則其爲作也必異於是。”(唐·李翱·『去佛齋論』)
(부처가 중국에서 난 즉 그 행함 또한 반드시 이와는 다르다.)

[예7]“風俗習慣道德宗教趣味好尚言語暨其他爲作，俱欲去上下賢不肖之間，以大歸乎無差別。”(魯迅·『墳·文化偏至論』)(풍속, 습관, 도덕, 종교, 취미, 기호, 언어 및 기타행위 모두 위와 아래, 현명함과 어질지 못한 차별을 제거하여 무차별에 이르고자 한다.)

[예4]의 ‘爲作大安’은 ‘편안한 의지처가 되다’의 의미로 ‘爲’ 뒤에는 ‘중생’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예5] 역시 ‘爲作衣服’에서 ‘그에게 옷을 해주다’의 의미로 ‘爲’의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唐代 ‘爲’는 ‘爲’의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로 ‘爲’와 ‘作’가 결합하여 사용되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단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爲作’는 일반적인 행위나 그 행위를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예6]과 [예7]을 보면 ‘爲作’가 모두 ‘일반적인 행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인 행위’의 의미를 지닌 ‘爲作’는 唐代 문헌에 용례가 많이 보이고, 중화민국 초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爲作’는 문헌상에서 ‘가식적인 행위’와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두 의미는 생성시기와 사용시기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식적인 행위’의 ‘爲作’는 ‘春秋時代’ 예문을 시작으로 漢代, 唐代를 거쳐 元代에 이르기까지 예문이 보인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僞作’로 쓰이며 ‘어떤 물건을 속여서 진짜처럼 만들거나 그런 작품’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행위’의 의미를 지닌 ‘爲作’는 [예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唐代에 처음 용례가 보인다. 초기 ‘爲作’는 ‘爲’의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였으나 점차 하나의 단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문헌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행위’의 ‘爲作’는 唐代에 많이 사용되고 중화민국 초기까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현대로 오면서 ‘일반적인 행위’의 의미는 소실되고⁵⁾ ‘가식적인 행위’의 의미만 남게 된다. ‘가식적인 행위’의 의미는 다시 파생되어 ‘거짓으로 만들거나 그런 작품’을 의미하는 어휘로 사용된다.

5) ‘일반적인 행위’의 의미를 지닌 ‘爲作’는 北大 현대한어 語料庫에 예문이 보이지 않는다.

*晨朝

‘晨朝’는 본래 ‘아침에 배알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史記·項羽本紀』에 보면 “項羽晨朝上將軍宋義，卽其帳中斬宋義頭。”(항우가 아침에 상장군 송의를 배알하고, 바로 그 군막에서 송의의 머리를 베었다.)라 하여 ‘晨朝’가 ‘아침에 알현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晨朝’는 隋·唐代에 이르러 ‘새벽녘, 이른 아침’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8] “欲觀慈顏，莫由審察，必於晨朝持大明鏡，引光內照，乃觀靈相。”
(唐·玄奘·『大唐西域記·摩揭陀國上』) (자애로운 얼굴을 보고자 하면 자세히 살피지 말고 필히 이른 아침에 대명경을 가지고 빛을 안으로 비추면 부처의 영험한 얼굴이 보인다.)

[예9] “晨朝降白露。”(唐·杜甫·『與任城許主簿遊南池』詩) (아침에 이슬이 내리다.)

[예10] “我今已習鴛子定，猶復晨朝怖頭走。”(宋·蘇軾·『次韻張甥棠美述志』) (나는 지금 이미 추자(鴛子)의 禪定(참선하여 삼매경에 이름)을 배웠으나, 아직 여전히 이른 새벽마다 두려워 불안에 떠다.)

[예8]~[예10]을 통해 ‘晨朝’가 唐·宋代에 ‘이른 아침’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晨朝’는 唐·宋代 문헌에 용례가 많이 보이고 후대로 오면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北大 현대한어 語料庫에 보면 9차례 출현하나 모두 근대시기(隋·唐代)의 예문을 인용한 것으로 현대에는 소멸된 어휘로 볼 수 있다.

*戰掉

『說文解字』(이하 『說文』)에 “戰，斗也。”라 하고, 『字林』에 “掉，搖也。”라 하였으며, 『廣雅』에 “掉，振動也。”라 하여 ‘戰掉’는 ‘겁먹거나 두려워 떨다’의 의미를 지닌다. ‘戰掉’는 唐代 처음 용례가 보인다.

[예11] “及至臨泰山之懸崖，窺巨海之驚瀾，莫不戰掉悼慄。”(唐·韓愈·『上襄陽於相公書』) (태산의 낭떠러지에 이르러 거대한 바다의 놀란 파도를 보면 두려워 떨지 않는 자가 없다.)

[예12]“譬之秦武陽氣蓋全燕，見秦王則戰掉失色。”(宋·胡仔·『苕溪漁隱叢話前集·參寥』)(예컨대 진무양의 기개가 연나라를 덮었을지라도 진왕을 보고는 두려워 떨며 낯빛이 변하였다.)

[예13]“澤清呼猿捧酒跪送客，猿猱甚，客戰掉，逡巡不敢取。”(『明史·劉澤清傳』)(澤清이 원숭이를 불러 술을 받쳐 들고 무릎 꿇고 손님께 바치게 했다. 원숭이가 심히 영악하므로 손님은 두려워 떨며 주저하면서 감히 받지 못하였다.)

[예11]~[예13]의 예문을 통해 ‘戰掉’는 모두 ‘두려워 떨다’의 의미로 唐代부터 清代까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戰掉’는 北大 現代한어 語料庫에는 예문이 보이지 않는다. ‘戰掉’는 문헌상의 용례로 볼 때 唐代 생겨나 清末까지 사용되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용하지 않는 소멸 어휘로 볼 수 있다.

*啖食

『字林』에 “謂虫食曰啖.”(벌레가 갇아먹는 것을 ‘啖’라 한다.)라 하였는데, ‘啖食’는 ‘벌레가 갇아먹다, 벌레가 물다’의 의미에서 ‘통째로 삼키다’라는 의미로 파생되어 사용된다. ‘벌레가 물다’의 의미를 지닌 ‘啖食’어휘는 5세기경 불경문헌에 용례가 보이기 시작한다. 『百喻經·治禿喻』⁶⁾에 “昔有一人，頭上無毛，冬則大寒，夏則患熱，兼爲蚊虻之所啖食.”(옛적에 대머리인 사람이 있었는데, 겨울에 많이 춥고 여름에 더운데다가 벌레들에 의해 물리게 되었다.) 라는 예문이 보인다. ‘啖食’는 후대로 오면서 ‘통째로 삼키다’의 의미로 파생되어 사용되는데, 이러한 의미를 지닌 ‘啖食’어휘는 중화민국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淸代 沈覆의 『浮生六記·浪遊記快』에 “余投餌試之，僅見不盈尺者出而啖食焉.”(내가 미끼를 던져 그것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길이가 충분치 않은 것이 나타나서 그것을 삼키는 걸 보았다.)라는 예문과 章炳麟의 『中華民國解』에 “行過餅家，見有美食，則張口而啖食之.”(과자점을 지나다가 맛있는 것을 보고 입을 벌려 그것을 통째로 삼켰다.)라는 예문이 보인다. ‘啖食’는 北大 現代한어 語料庫에는 보이지 않는데, 본

6) 『百喻經』은 우화로 이루어진 불경으로 5세기 인도의 승려 가사나(伽斯那)가 정리했다고 하는 일설이 있음.

래 ‘벌레가 물다(값아먹다)’의 의미로 中古時期에 사용되다 후대로 오면서 ‘통째로 삼키다’의 의미로 과생되어 중화민국 초까지 사용되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소멸 어휘로 볼 수 있다.

*諛諂

『說文』에 “諛, 諂也.”라 하고, 『荀子·修身』에 보면 “諂諛我者, 吾賊也.”(나에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도적이다.)라 하여, ‘諛’과 ‘諂’ 모두 ‘아첨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諛諂’은 同義語素로 이루어진 복합어로 漢代문헌에 처음 용례가 보인다.

[예14]以諛諂應直言, 以輕薄應敦厚.(漢·王符·『潛夫論·考績』)(아첨을 직언으로 대응하고, 경솔함을 신중함으로 대응한다.)

[예15]謂之諛諂, 內犯惡行.(西晉·『佛說當來變經』)(그것을 아첨하다라 일컬으니, 속으로 악행을 범하는 것이다.)

[예16]外似如法, 內懷諛諂.(『五苦章句經』·東晉西域沙門竺曇無蘭譯)(겉으로는 법에 따르는 거 같으나, 속으로는 아첨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예17]人事極諛諂, 引古稱辨雄.(宋·梅堯臣·『答三韓見贈述詩』)(인사에 있어서 매우 아첨할지라도 옛 것을 인용하여 변론하면 매우 설득력이 있다.)

‘諛諂’은 漢代부터 近代時期까지 사용되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소멸된 어휘이다. [예14]~[예17]를 보면 ‘諛諂’은 漢代문헌에 용례가 보이고 東晉과 宋代까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荀子·修身』에 ‘諂諛’가 출현한 것을 보면 先秦시기와 漢代 등 일정기간 동안 ‘諂諛’과 ‘諛諂’이 혼용돼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예15]~[예16]을 통해 ‘諛諂’은 중고시기 불교문헌에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諛諂’은 宋代까지 예문이 보이고([예17]), 宋代이후에는 점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⁷⁾ 北大 현대한어 語料庫에 보면 ‘諛諂’은 보이지 않고 ‘阿諛諂媚’란 성어가 보이는데 明代 馮夢龍의 『喻世明言·裴晉公義還原配』에 “只是這幫阿諛諂媚的, 要博相國歡喜, 自然重價購買.”라는 예문이 보인다. 여기서 ‘阿諛’는 ‘다른 사람의 뜻에 영합

7) ‘諂諛’는 明代까지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明代 歸有光的 『項脊軒志』에 보면 ‘諂諛之臣’이라는 예문이 보인다.

하여 비위를 맞추다'의 의미이고, '諂媚' 역시 '아부하다, 아첨하다'의 의미로 말하거나 행동에 있어 알랑거리면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現代 '아첨하다'의 어휘로 '諂媚', '阿諛' 등이 사용되고 '諛諂'은 소멸 어휘로 볼 수 있다.

*漂疾

王褒의 『洞簫賦』에 '迅漂巧兮'라 하여 '漂'는 '빠르다'의 의미를 지닌다. '疾'는 『禮記』에 '奮疾而不拔' (떨치듯 빠르나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예문과 '征鳥厲疾' (매가 사납고 빠르다.)의 예문이 보이는데, 모두 '빠르다, 신속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漂疾'는 同義語素가 결합한 어휘로 漢代 문헌에 처음 용례가 보이며, '물살이 빠르다'의 의미를 지닌다.

[예18] 衍溢漂疾, 波湧而濤起. (漢·七發) (물살이 빠르게 넘쳐흐르며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다.)

[예19] 敢死之士拔柵斫橋, 水又漂疾, 倏忽之間, 橋柵盡壞. (唐·『南史』) (죽을 각오를 한 병사들이 울타리를 뽑고 다리를 자르니 물살이 더욱 빨라져 별안간 다리와 울타리가 다 무너졌다.)

[예20] 淮水漂疾. (『南史·康絢傳』) (회수의 물살이 빠르다.)

[예21] 既召試, 命文漂疾, 午漏不移晷已就. (宋·葉適·滕季度墓志銘) ((그를) 시험하려고 불러, 빠르게 문장을 쓰라고 하자, 정오의 물시계가 바뀌기도 전에 완성하였다.)

[예18]~[예20]을 통해 '漂疾'는 漢代부터 唐代까지 '물이 빠르게 흐르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宋代에는 [예21]과 같이 '빠르다, 신속하다'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漂疾'는 宋代이후로는 예문이 보이지 않는데, 漢代 출현해 '물이 빠르게 흐르다'의 의미로 사용되다 宋代에는 '빠르다, 신속하다'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으나, 宋代이후 예문이 출현하지 않아 소멸 어휘로 볼 수 있다.

*除愈

'除愈'는 '병이 낫다, 완쾌하다'의 의미를 지닌 어휘로 漢代 『太平經』에 처음 용

례가 보인다.

[예22]今日思行之, 凡病且自都除愈莫不解. (『太平經』) (이제 생각해 보면, 무릇 병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아서 제거되지 않는 것이 없다.)

漢代 이후 '除愈'는 宋代까지 문헌상에 자주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예23]“兼去歲第六兒夭喪, 痛苦成疾, 猶未除愈.”(南朝·陳·徐陵『又與天台智者大師書』) (작년에 여섯 번째 자식이 요절하자 고통이 질병이 되어 아직 낫지 않았다.)

[예24]衆邪遠避, 自然除愈.(『玉皇經』⁸⁾) (많은 사악한 것들이 멀리 비켜가고 자연히 나아진다.)

[예25]“退卻六天之氣, 令臣某⁹⁾百病除.(北宋·雲笈七籤』) (6일 동안의 기운을 막아 물리치고, 신모(臣某)의 온갖 병을 낫게 하다.)

[예26]“累年沉痾, 衆藥備嘗, 曾微除愈之期, 僅有蘇醒之覺.”(宋·葉適·『湖南運判到任謝表』) (오래된 숙환으로 여러 약을 사용하여 미미하게 낫는 듯 하고 조금 소생의 느낌이 있다.)

[예22]~[예26]을 통해 '除愈'는 '병이 낫다, 완쾌하다, 좋아지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용시기를 보면 漢代 출현해 魏晉南北朝 시기를 거쳐 唐宋 시기 문헌에 많이 보인다. '除愈'는 北大 현대한어 語料庫에는 용례가 보이지 않아 宋代 이후 사라진 소멸 어휘로 볼 수 있다.

***規欲**

'規欲'는 '~하려고 하다, 모색하다, 강구하다, 꾀하다'의 의미를 갖는데, 주로 魏晉南北朝 시기와 唐宋代 문헌에 많이 보인다.

[예27]“昔有一婦, 荒淫無度, 欲情既盛, 嫉惡其夫, 每思方策, 規欲殘害, 種種設計, 不得其便.”(『百喻經』) (옛적에 한 아내가 있었는데, 음란하

8) 『玉皇經』은 작자미상으로 대략 隋唐代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9) 『禮記·曲禮下』에 있는 말로 제후가 천자를 뵈 때 '신모(臣某)'라 함.

고 법도가 없으며, 욕정이 심할 뿐 아니라 그 지아비를 증오하였다. 매번 방책을 생각해 (지아비를) 살해하려 갖가지 계획을 하였으나 그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예28] “規欲歸順.”(『宋書¹⁰⁾·魯爽傳』) (귀순하고자 하다, 투항하고자 하다.)

[예29] 規欲雪復.(『宋書』) (치욕을 씻고자 강구하다.)

[예30] 瑱等以敦孤軍深入, 規欲取之.”(『周書¹¹⁾·賀若敦傳』) (侯瑱 등은 지원 없는 고립된 군사로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 그것을 취하고자 하였다.)

[예31] “詩到大陽, 聞賊規欲北度, 乃與長史急焚其船.”(『後漢書¹²⁾·杜詩傳』) (杜詩가 大陽에 이르러 도적이 북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을 듣고 이에 장사(관직명)와 더불어 서둘러 그 배를 불태웠다.)

‘規欲’는 玄應의 『一切經音義』에 “規, 計也. 規亦求也. 謂以法取之也.”(‘規’는 ‘계획하다’의 의미이다. 또한 ‘구하다’의 의미이다. 규범에 따라 얻는 것을 일컫는다.)라 하였다. [예27]~[예31]를 보면 ‘살해하고자 하다([예27])’, ‘귀순하고자 하다([예28])’, ‘치욕을 씻고자 하다([예29])’, ‘그것을 취하고자 하다([예30])’, ‘북으로 가고자 하다([예31])’라 하여, ‘規’는 ‘계획하다’의 의미보다 ‘~하기를 원하다, ~하려고 하다’의 의미로 풀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즉 ‘規’는 ‘欲’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문헌상에 ‘規欲’는 同義語素로 이루어진 복합어로 ‘~하려고 하다, 원하다, 모색하다, 강구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사용시기를 보면 魏晉南北朝 시기에 출현해 唐宋時期에 주로 사용되고, 후대로 오면서 사용이 줄어든다. ‘規欲’는 北大 현대한어 語料庫에는 보이지 않아 후대에 사라진 소멸 어휘로 볼 수 있다.

*背僂

‘背’는 『說文』에 ‘背, 脊也.’라 하여 ‘척추’를 가리키고, ‘僂’는 『廣雅』에 “僂, 曲

10) 南朝時代 제(齊)나라 무제(武帝)의 명으로 양(梁)나라 심약(沈約)이 펴낸 남조 송나라의 정사(正史)로 무제(武帝)에서 순제(順帝)까지의 역사를 기록함. 487년에 간행됨.

11) 중국 당나라 때, 영호덕분(令狐德棻)이 황제의 명에 따라 지은 북주(北周)의 역사책.

12) 중국 후한(後漢)의 정사(正史). 송(宋)나라의 범엽(范曄)이 저술함.

也.”라 하여 ‘굽다’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通俗文』에 보면 “曲脊謂之偃僂.”(척추가 굽은 걸 ‘偃僂(굽사등이)’라 한다.)라 하여 ‘背僂’는 등이 굽거나 굽은 사람을 의미한다. ‘背僂’는 漢代 문헌에 예문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32] “或折臂望視，或秃肝背僂亦聖.”(『孔叢子』) (어떤 이는 팔이 부러 지거나 원시였으며, 어떤 이는 정강이에 털이 없거나 등이 굽었지만 또한 聖人들이었다.)

[예33] “武王望陽，周公背僂.”(『論衡』) (무왕은 원시였고, 주공은 굽추 였다.)

[예32]와 [예33]의 『孔叢子』와 『論衡』은 모두 漢代 문헌으로 ‘背僂’는 ‘등이 굽다’ 또는 ‘굽사등이’의 의미를 지닌다. ‘背僂’는 漢代 이후 주로 불교경전에 보인다.

[예33] 若髮白露頂，皮緩根熟，支弱背僂，垂頭呻吟，短氣前輸，拄杖而行，身體黧黑，四體斑駁，聞鈍垂熟，造行艱難羸劣，是名爲老。(『雜阿含經』¹³⁾) (만일 흰머리가 정수리에 보이고, 피부가 늘어지고,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 등이 굽어지고, 머리를 숙여 신음소리를 내며, 앞으로 내보내는 숨이 짧고, 지팡이에 의지해 다니고, 신체에 검은 점이 생기고 온 몸이 얼룩덜룩해지며, 어리석고 우둔해져 늘어짐이 익숙하며 걸기가 곤란하고 쇠약해지면 이것을 늙었다고 하는 것이다.)

[예34] 頭白而背僂。(『佛本行經』) (머리가 희었고, 등이 굽었다.)

[예33]과 [예34]의 『雜阿含經』과 『佛本行經』은 모두 魏晉南北朝 시기의 譯本으로, 여기서 ‘背僂’는 신체상의 변화 즉 등이 굽는 것을 의미한다. ‘背僂’는 清代 『隨園隨筆·今疾病見古書』에 예문이 보이니¹⁴⁾ 이는 『論衡』의 예문을 인용한 것으로 中古時期 불경문헌에 출현한 후 후대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背僂’는 漢代에 출현해 魏晉南北朝 시기까지 사용되다 소멸된 어휘로 볼 수 있다.

13) 『雜阿含經』은 기원 435년부터~443년까지 求那跋陀羅(Gunabhadra)에 의해 漢譯된 것으로 보인다.

14) “『論衡』言周公背僂，卽今之背彎也。”(清·『隨園隨筆·今疾病見古書』)

*耘除

‘耘除’는 玄應의 『一切經音義』에 보면, ‘耘(yún)은 ‘除草也.’라 하여 ‘풀을 뽑다’의 의미를 지닌다. ‘除’는 『書經·泰誓』에 “除惡務本.”(악을 제거할 때는 뿌리(제거)에 힘써야 한다.)라 하고, 『戰國策·燕策』에 보면 “然則將軍之仇報, 而燕國見陵之恥除矣.”(그러한즉 장군의 원한을 갚을 수 있고, 능욕당한 연나라의 수치도 없앨 수 있다.)라 하여 ‘除’는 ‘제거하다, 없애다’의 의미를 지닌다. ‘耘除’는 ‘풀을 뽑아 제거하다’ 의미에서 ‘뿌리 뽑다, 제거하다, 없애버리다’의 의미로 파생되어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35]“秣, 耘除也. 今『詩』本‘秣’作‘薶’, 音義同.”(『爾雅注疏』) (‘秣’는 ‘풀을 뽑다’의 의미이다. 이제 『詩』에 ‘秣’는 ‘薶(풀을 뽑다)’라 하니 음과 뜻이 같다.)

[예36]“見修園圃, 當願衆生, 五欲園中, 耘除愛草.”(『華嚴經』) (동산을 다듬는 것을 볼 때에 마땅히 중생은 오욕의 동산 가운데 애착의 풀을 제거하기를 원하라.)

[예37]“天子行幸所在, 諸侯躬親灑掃, 耘除禦路, 以表至敬之心.”(『隋書』) (천자가 출행하는 곳은 제후들이 몸소 친히 물을 뿌리고 청소하며 어로의 풀을 뽑음으로써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한다.)

[예38]“義士忠臣, 耘除略盡.”(宋·黃庭堅·『讀曹公傳』詩序) (의로운 선비와 충신이 다 제거되었다.)

[예35]~[예37]의 예문을 보면 ‘耘除’는 ‘풀을 뽑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예38]의 ‘耘除’는 ‘뿌리 뽑다’ 즉 ‘제거하다, 없애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耘除’의 사용 시기를 보면 주로 魏晉南北朝 시기와 唐宋 시기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魏晉南北朝 시기와 唐代에는 ‘풀을 뽑다’의 본의미가 주로 사용된 반면, 宋代에는 ‘뿌리 뽑다, 제거하다, 없애다’의 의미로 파생되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耘除’는 北大 現代漢語 語料庫에는 보이지 않는데, 중고시기와 근대시기에 주로 사용되다 宋代 이후 소실된 어휘로 볼 수 있다.

*憤鬧

『楚辭·逢尤』에 보면 “心煩憤兮意無聊.” 王逸曰: “聊, 樂也.”(마음이 심란하여 마음에 기쁨이 없다. 王逸은 ‘聊’를 ‘樂’이라 하였다.)라 하여, ‘憤’는 ‘심란하다, 혼란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鬧’는 『說文』에 “不靜也.”라 하여 ‘조용하지 않다’의 의미를 지닌다. ‘憤鬧’는 두 대등한 語素가 결합한 어휘로 ‘혼란하고 시끄럽다’의 의미를 지닌다. ‘憤鬧’는 5세기 문헌에 보이기 시작해 唐代 불교문헌에 자주 출현한다.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40] “比丘亦爾. 樂在衆務憤鬧之處食少利養, 爲煩惱賊奪其功德戒寶瓔珞.”(『百喻經·小兒得歡喜丸喻』) (비구니도 이와 같다. 여러 일과 혼란하고 시끄러운 곳을 즐기며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번뇌의 도적에게 그 공덕과 계율의 보배 구슬을 빼앗긴다.)

[예41] 汝等比丘, 欲求寂靜, 無爲安樂, 當離憤鬧, 獨處閑居.(『佛遺教經』) (비구들이여, 적정무위(寂靜無爲)의 안락(安樂)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안팎의 심란(心亂)과 시끄러움을 떠나 혼자 한가한 곳에 있어야 한다.)

[예42] 修定行者, 若未成就諸三摩地, 初夜後夜, 當捨睡眠, 精進修學, 遠離憤鬧, 少欲知足, 無所顧戀.(唐·玄奘譯·『大乘大集地藏十輪經』) (만일 선정을 닦는 이로서 저 삼매를 성취하지 못했으면, 초저녁으로부터 새벽까지 잠자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시끄러움을 멀리 떠나고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

『百喻經』은 인도의 승려 상가세나(Saṅghasena)가 편찬한 우화집으로, 492년에 그의 제자 구나브리디(Guṇavariddhi)가 한문으로 번역하였다.¹⁵⁾ 『佛遺教經』은 5세기 초 後秦 龜茲國의 삼장법사 구마라집이 번역한 문헌으로 [예40]과 [예41]의 ‘憤鬧’는 모두 ‘혼란하고(심란하고) 시끄럽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42]의 예문을 통해 ‘憤鬧’는 唐代에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憤鬧’는 5세기에서 唐代에 이르기까지 불교문헌에 자주 출현한 어휘로 볼 수 있다. ‘憤鬧’는 北大 現代한어 語料庫에는 보이지 않는다.

15) DAUM 백과 참조.

***革履**

‘革’는 『說文』에 “獸皮治去其毛.”라 하여 ‘털을 제거한 동물 가죽’을 의미하고, ‘履’는 『廣雅』에 “履, 履也.”라 하여 ‘신발’이나 ‘밟다’의 의미를 지닌다. ‘革履’는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魏晉南北朝 시기에 처음 용례가 보인다.

[예43] 諸女子輩, 皆脫革履. 中有一女而獨不脫, 并履入水. (『賢愚經』)
 (여러 여자 무리들이 모두 신발을 벗었다. 그 중 한 여인이 홀로 벗지 않고 신발을 신고 물에 들어갔다.)

[예44] 一偏露右肩, 二脫革履, 三右膝著地, 四合掌說所犯. (『四分律』)
 (첫 번째 오른쪽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두 번째 신을 벗고, 세 번째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네 번째 합장하며 잘못된 것을 말한다.)

[예45] “貴者著革履, 賤者跣行.” (唐·『南史』) (부자는 가죽신을 신고, 가난한 자는 맨발로 다닌다.)

[예46] 不得著革履. (清·『全梁文』)

[예43]과 [예44]를 보면 『賢愚經』은 5세기 중반 魏나라 慧覺 등이 번역한 佛典이고, 『四分律』은 410~412년에 姚秦의 佛陀耶舍가 번역한 戒율서로 모두 ‘革履’의 용례가 보인다. [예45]의 예문을 통해 ‘革履’는 唐代에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예46]을 보면 『全梁文』에 ‘革履’의 용례가 보이는데 『全梁文』은 清代에 편찬된 것이나 대부분 내용이 唐 이전의 문장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문헌의 특성상 魏晉南北朝 시기의 언어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革履’는 北大 現代漢語 語料 庫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革履’는 魏晉南北朝 시기 출현한 新聲어휘로 불교문헌에 주로 보이며, 唐代까지 사용되다 소멸된 어휘로 볼 수 있다.

***怖遽**

‘怖’는 『韓非子·喻老』에 보면 “昔者紂爲象箸而箕子怖.”(옛적에 주왕이 상아 젓가락을 사용하여 기자가 두려워하였다.)라는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두려워하다, 겁내다’의 의미를 지닌다. ‘遽’는 『說文』에 “傳也.”라 하여, ‘傳’과 ‘遽’는 ‘互訓字’로 사용되는데, ‘역참에서 서신을 급히 전하는 말 또는 마차’를 의미한다. ‘遽’는

파생되어 ‘즉시, 급히’, ‘당황하다’의 의미¹⁶⁾로 사용된다. ‘怖遽’는 두 대등 語素가 결합하여 ‘놀라 당황하다, 우왕좌왕하다, 두려워 떨다’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魏晉南北朝 시기에 용례가 보인다.

[예47] “豐怖遽氣索，足委地不能起。”(裴松之注引三國·魏·魚豢『魏略』)
(李豐이 두렵고 놀라 혼절하여 다리가 땅에 늘어져 일어날 수 없었다.)

[예48] “夫大國難測也，懼有伏焉，吾視其輒亂，望其旗靡，故逐之。”(『左傳·莊公十年』) (대체로 (제나라와 같이) 큰 나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거짓으로 퇴각하여) 복병을 숨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적병의 수레바퀴 자국이 어지러운 것을 보고, 적군의 깃발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적을 추격한 것입니다.) 晉·杜預注：“旗靡輒亂，怖遽。”(진의 杜預는 ‘旗靡輒亂(수레바퀴 자국이 어지럽고 군사의 깃발이 넘어지다.)’를 ‘怖遽’로 주석하였다.)

[예47]을 보면 裴松之가 魏나라 어환(魚豢)의 『魏略』을 인용한 문장에 ‘怖遽’의 용례가 보이고, ‘두려워 떨다’의 의미를 갖는다. [예48]을 보면 晉의 杜預가 ‘旗靡輒亂’을 ‘怖遽’로 주석하였는데, 이는 전쟁에 저서 놀라 당황하거나 두려워 떠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용례를 통해 ‘怖遽’는 魏晉南北朝 시기에 사용되고 ‘놀라 당황하다, 두려워 떨다’의 의미를 지니는데, 현대한어에는 용례가 보이지 않아 소멸된 어휘로 볼 수 있다.

*悵快

『史記·陳涉世家』에 “陳涉少時，嘗與人傭耕，輟耕之壟上，悵悵久之：‘苟富貴，無相忘。’”(진섭이 젊었을 때 일찍이 사람들과 함께 머슴으로 밭갈이를 할 때, 밭갈이를 멈추고 밭두렁에서 한참 동안 한탄하며 ‘만일 부귀해지면 서로 잊지 말게나.’라고 하였다.) 이라 하여 ‘悵’은 ‘실의에 빠지다, 섭섭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快’은 『說文』에 ‘心不服也.’라 하여 ‘마음으로 불복하다’의 의미가 있다. 문헌상에 ‘悵’과 ‘快’이 결합하여 사용된 용례가 보이는데, 출현 시기는 魏晉南北朝 시대로 보인다.

16) 『呂氏春秋·察今』：“遽契其舟。”(급히 그 배에 새기다.)

『漢典』에 ‘당황하다’의 의미항은 보이나 예문은 보이지 않는다.

- [예49] 悵悵濁水際, 幾忘映清渠.(晉·支遁·『詠懷』) (슬프게 탁수 가에 있다가 오랫동안 잊고 맑은 도랑 비취본다.)
 [예50] 悵悵不樂.(『起世經』(隋代闍那崛多譯) (서글프고 기쁘지 않다.)
 [예51] 愁憂悵悵. 啼哭泣淚.(『大藏經』17) (근심하며 비탄에 잠기다.)
 [예52] 寄語故人休悵悵.(唐·牟融·『寄周韶州』詩)
 [예53] 余乃歔歔悵悵.(『紅樓夢·第七八回』) (내가 이에 흐느껴 울며 한탄하였다.)

‘悵’과 ‘悵’은 문헌상에서 종종 결합하여 사용되는데, [예49]~[예53]의 예문을 통해 魏晉南北朝 시대부터 清代까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悵悵’은 ‘비탄에 잠기다, 슬퍼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현대한어 語料庫에는 출현하지 않아 소멸 어휘로 볼 수 있다.

***羸瘠**

‘羸’은 『說文』에 ‘瘦也.’라 하여 ‘과리하다, 여위다’의 의미를 지니고, ‘瘠’은 『左傳·昭公十三年』에 “牛雖瘠, 債於豚上, 其畏不死?”(소가 비록 말랐어도 돼지 위에 엎어지면 돼지는 두려움에 죽지 않겠는가?)라 하여 ‘여의고 마르다’의 의미를 지닌다.

‘羸瘠’은 두 동일 의미의 語素가 결합하여 ‘여위고 허약하다’의 의미를 지니며, 先秦시기부터 清代까지 사용된 어휘이다.

- [예54] “庶人則凍餒羸瘠於下.”(『荀子·正論』) (백성들은 아래에서 추위에 떨고 굶주려 여위어 간다.)
 [예55] “遭喪後, 遂終身羸瘠.”(『北齊書·王昕傳』) (상을 치른 후 평생 여위고 말랐다.)
 [예56] “羸瘠且如何.”(唐·杜甫·『詠懷』) (수척한들 또한 어떠한가?)
 [예57] “當不乏肉食, 何羸瘠乃爾!”(清·蒲松齡·『聊齋志異』) (고기 음식이 부족하지 않은데 어찌 이리 야위었느냐?)

[예54]~[예57]의 예문을 보면 ‘羸瘠’은 ‘여위고 마르다’의 의미를 갖는다. 先秦

17) 중국 北宋 開寶大藏經(968~975).

부터 清代까지 용례가 보이고, 北大 現代한어 語料庫에는 출현하지 않아 소멸 어휘로 볼 수 있다.

*楚撻

‘楚’는 『說文』에 ‘叢木也.’라 하여 ‘관목(灌木)’의 의미를 지닌다. 또 『玄應音義』 설해에 일명 ‘荊’이라 하여 ‘광대싸리 채’를 의미하며, ‘회초리’의 의미를 갖는다. ‘撻’는 『說文』에 ‘鄉飲酒, 罰不敬, 撻其背也.’(마을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불경한 사람을 벌하였고, 그 등을 채찍으로 때렸다.)라 하여 ‘채찍질 하다, 때리다’의 의미를 지닌다. 『廣雅』에 ‘撻’는 ‘擊也.’라 하여 ‘두드리다, 공격하다’의 파생의미를 지닌다. ‘楚撻’는 동의 語素가 결합된 어휘로 ‘방망이나 채로 때리다, 치다’의 의미를 지니며, 魏晉南北朝 시기에 처음 용례가 보인다.

[예58] 夫爲夫婦者, 義以和親, 恩以好合, 楚撻旣行, 何義之存? (『後漢書·列女傳』) (무릇 부부라는 것은 의리로 화목하게 지내고, 은혜로 잘 지내는 것인데 구타가 이미 행해졌으니 무슨 의리가 있겠는가?)

[예59] 慶伯不得已, 因具告其狀. 俄見向三騶, 楚撻流血, 怒而立于前曰: “君何相誤也?” (『述異記』¹⁸⁾) (慶伯이 마지못해 모두 그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였다. 문득 三騶를 보니 맞아서 피가 흐르고 격노하며 앞에서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일을) 그르치는가?”)

[예60] 不忍楚撻慘其肌膚耳. (北齊·顏之推·『顏氏家訓』) (그 골육을 비참하게 때리는 것을 차마 참을 수 없다.)

[예61] 月餘, 手足不能自舉, 其楚撻之處皆潰爛, 穢甚. (唐·白行簡·『李娃傳』) (한 달이 넘었으나,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아버지로부터) 맞은 자리는 다 곪아서 더럽기 짝이 없었다.)

‘楚撻’은 두 동의 語素가 결합하여 ‘채찍질 하다’와 ‘맞다’의 의미를 지니는데, [예58]~[예61]의 예문을 통해 魏晉南北朝 시기부터 隋代를 거쳐 唐代까지 문헌상에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18) 『述異記』는 중국 고대소설집으로, 南朝 梁나라의 任昉이 저술함.

3. 『一切經音義』 속 일반어휘의 소멸 原因 小考

3.1 어휘의 구성 語素 약화에 따른 소멸

*沮壞

『韓非子·二柄』에 ‘妄學, 則事沮不勝.’(망령되어 기용하면 즉 일이 망쳐지고 견뎌내지 못한다.)라 하여 ‘沮’는 ‘손상되다, 망치다’의 의미를 갖는다. ‘壞’는 『說文』에 ‘敗也.’라 하여 ‘무너지다’의 의미를 지닌다. ‘沮壞’는 두 同義語素가 결합되어 ‘무너지다, 망치다, 파괴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문헌상에 漢代부터 清代까지 예문이 보이나, 출현빈도가 높지는 않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예62] 木梗謂土耦人曰：“子先土也，持子以爲耦人，遇天大雨，水潦並至，子必沮壞。”(漢·劉向·『說苑·正諫』) (나무인형이 흙인형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원래 흙이었다. 그 흙을 가져다가 인형을 만든 것이니 큰비가 오고 물이 넘쳐 밀려들게 되면 너는 어쩔 수 없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예63] “成祖在北京，或奏南京鈔法爲豪民沮壞，帝遣使廉視。”(『明史·鄭樾傳』) (성조가 북경에 있을 때, 후자가 ‘남경의 지폐법이 호민(豪民)¹⁹⁾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라고 아뢰니, 황제가 鄭樾을 보내 살펴보게 하였다.)

‘沮壞’는 北大 現代한어 語料庫에 출현하지 않아 소실된 어휘로 볼 수 있다. ‘손상되다, 망치다’ 의미의 ‘沮’는 문헌상에 용례가 많지 않고, ‘沮壞’도 다른 어휘들보다 출현빈도가 낮은 편이다.²⁰⁾ ‘무너지다, 망치다, 파괴하다’의 의미를 지닌 ‘沮壞’는 ‘沮’ 자리에 다른 語素, 즉 ‘毀, 敗, 破’가 사용되어 동일 의미를 지니는데, 이들은 ‘壞’ 語素와 결합하여 문헌상에 자주 출현하고 다른 語素와도 결합이 잦아 결속력이 강한 語素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沮壞’에서 ‘沮’는 결속력 약화 및 사용감소

19) 지방에서 권적이 없지만 재력을 가진 자들로, 법도를 지키지 않고 백성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20) 北大 고대한어 語料庫에 ‘沮壞’는 197회, ‘毀壞’ 211회, ‘敗壞’ 236회, ‘破壞’는 1101회 출현하고, 現代한어 語料庫에는 ‘沮壞’는 출현하지 않는 반면 ‘毀壞’ 2374회, ‘敗壞’ 2177회, ‘破壞’는 28054회 출현한다.

로 인해 점차 다른 語素에게 밀려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는 결속력이 강한 語素들이 차지하게 된다. 현대로 오면서 ‘毀壞, 敗壞, 破壞’가 ‘沮壞’의 자리를 대신하고 용례도 많이 보인다.

3.2 어휘 구성 語素의 각각 다른 語素와의 결합으로 인한 소멸

*諛諂

『說文』에 ‘諛, 諂也.’라 하였다. 『莊子·漁夫』에 ‘不擇是非而言謂之諛.’(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것을 일컬어 ‘諛’라 한다.)라 하고, 『荀子·脩身』에 ‘以不善和人者謂之諛.’(불선으로 다른 사람과 화합하는 것을 ‘諛’라 한다.)라 하여 ‘諛’는 貶義詞로 ‘아첨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諂’은 『論語·學而』에 ‘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아니하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다.)라 하고, 『荀子·脩身』에 ‘以不善先人者謂之諂.’(불선으로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을 ‘諂’이라 한다.)이라 하여 역시 ‘아첨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一切經音義』 속 ‘諛諂’은 두 同義語素가 결합하여 ‘아첨하다, 알랑거리다’의 의미를 지닌다. ‘諛諂’은 漢代부터 宋代까지 예문이 보이는데²¹⁾, 北大 고대한어 語料庫에 보면 특히 魏晉南北朝 시대 불경 문헌에 자주 출현한다.²²⁾

아첨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諛諂’은 문헌상에 각기 다른 語素와 결합하여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로 ‘諂媚’와 ‘阿諛’ 등을 들 수 있다. ‘諂媚’는 南北朝시대 예문이 처음 보이는데²³⁾ 北大 고대한어 語料庫에 단 16회 출현하고, 현대한어 語料庫에는 281회 출현하여 현대로 오면서 사용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阿諛’²⁴⁾ 역시 고대한어 語料庫에는 9회 출현하는 반면 현대한어 語料庫에는 325

21) 漢·王符·『潛夫論·考績』: “以諛諂應直言, 以輕薄應敦厚.”

魏晉南北朝·『五苦章句經』: “外似如法, 內懷諛諂.”

宋·梅堯臣·『答三韓見贈述詩』: “人事極諛諂, 引古稱辨雄.”

22) 北大 古代漢語 語料庫에 약 180여회 출현하고(중복예문 포함), 주로 魏晉南北朝 시기 불경 문헌에 자주 보인다.

23) 『後漢書·袁紹傳』에 “曲辭諂媚, 交亂懿親.”(그릇된 말로 첨언하며 간사한 말로 아첨을 떨어 친밀한 친척들을 교란시켰다.) 예문이 보인다.

24) ‘阿諛’는 『漢書』에 ‘阿諛曲從’(아첨하며 굽실거리다) 예문이 처음 보인다.

회 출현하여 현대로 오면서 사용량이 증가한다. '諛諂'은 고대한어 語料庫에 180여회 출현하나 현대한어 語料庫에는 보이지 않고 '阿諛諂媚'의 형태로 단 12회 출현한다.

이상에서 '諛諂'은 고대한어에서 '아첨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각 語素 '諛'와 '諂'은 각기 다른 語素와 결합하여 사용되다 현대로 오면서 '諛諂'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른 語素와 결합된 어휘들이 차지하게 된다.

3.3 어휘 사용감소와 신생어휘 사용에 따른 소멸

*勩勩

'勩勩'는 『廣雅』에 “勩, 勤也.”라 하고, 『埤蒼』에 “力作也.”라 하였다. 또 『玉篇』에 “勩, 用力也.”라 하고 『疊雅』에 “勩勩, 勤勞也.”라 하여 '勩勩'는 '힘을 다하는 모양'을 의미한다. '勩勩'는 문헌상에 '仵仵', '搯搯', '屹屹', '櫜櫜' 등 다양하게 쓰인다. 선진시기 문헌 『晏子春秋』에 “仵仵然不知厭.”이 보이고, 『莊子』에 “搯搯然用力甚多.”이 보이는데, '仵仵然'과 '搯搯然' 모두 '힘써 애쓰는 모양'을 의미한다. 西漢 시기 駢文인 王褒의 『聖主得賢臣頌』에 보면 “勞筋苦骨, 終日屹屹.” 예문이 보이는데 '屹屹' 역시 '힘써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屹屹'는 北大 고대한어 語料庫에 중복예문을 제외하면 17여회 출현하는데, 자주 '孜孜屹屹(부지런히 힘써 일하는 모양)'의 형태로 사용된다. '屹屹'는 現代한어 語料庫에 단 5회 출현하는데 모두 '孜孜屹屹'의 형태로 사용된다. '孜孜屹屹'는 唐나라 韓愈의 『爭臣論』에 처음 출현하는데²⁵⁾, '屹屹'는 唐代이후 주로 '孜孜屹屹'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隋代에 이르러 『大方等大集經』에 “勩勩專念不起亂想.”(힘써 마음을 모아야만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다.)이라는 예문이 보이고, 唐代 韓愈의 『進學解』와 杜甫詩 『鹽井』에 “恒兀兀以窮年.”(항상 열심히 애쓰는 모습으로 한 해를 보냈다.)와 “汲井歲櫜櫜, 出車日連連.”(해마다 힘을 쏟아 염정을 길고, 날마다 끊임 없이 수레에 담아내네.)이라는 예문이 보이는데, 예문의 '勩勩'와 '兀兀', '櫜櫜' 모

25) “而必以兼濟天下也, 孜孜屹屹, 死而后已.”(唐·韓愈『進學解』)

두 ‘열심히 애쓰는 모양’을 의미한다.

문헌상에 ‘勩勩’ 용례는 隋代 『大方等大集經』에만 보이고, ‘兀兀’는 唐代 출현하여 唐宋代 활발히 사용되다 현대까지 계승되어 사용된다. 郁達夫 『蕙蘿行』에 “所以當我兀兀的坐在床上的時候”(내가 애쓰고 침대에 앉아 있을 때)와 『莎士比亞全集』에 “沒有什麼報酬可言, 窮年累月, 兀兀不休.”(아무런 보답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애쓰고 쉬지 않았다.) 예문이 보인다. ‘榘榘’는 唐代와 清代 용례²⁶⁾가 보이거나 문헌상에 용례가 많지 않고 현대한어 어료고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勩勩’는 隋代 사용되다 唐代 출현한 ‘榘榘’와 ‘兀兀’ 등에게 자리경쟁에서 밀려 사라지게 되고, ‘榘榘’ 역시 唐代부터 清代까지 간헐적으로 사용되다 현대로 오면서 ‘兀兀’에 밀려 소실되어진다. ‘兀兀’은 唐代 출현해 주로 唐宋代 사용되다 현대까지 이어져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勩勩’는 문헌상의 용례를 통해 사용빈도가 낮아 현대로 오면서 소실되고, 그 자리를 신생어휘가 대체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4 경쟁어휘의 우위선점에 따른 문어체 전환

*伶僂

漢代 『三蒼』에 “伶僂猶聯翩也. 亦孤獨兒也.”라 하여 “伶僂은 聯翩(연속하여 나는 모습)과 같다. 또한 고독한 모습이다.”라 하였다. ‘伶僂’은 문헌상에 ‘고독하다, 외롭다’의 의미로 사용된 예문이 보인다. 東漢末에 “晝夜勤作息, 伶僂縈苦辛.” 『孔雀東南飛』(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면서, 홀로 외로이 고통에 시달렸다.) 예문과 唐詩에 “肥男有母送, 瘦男獨伶僂.” 『新安吏』(살찐 사내아이는 어머니가 나와 배웅하지만, 마른 사내아이는 혼자 외롭구나.)이라는 예문이 보인다. 또 清代 『疏影』에 “忍伶僂抱影”이라는 예문이 보이는데, ‘伶僂’과 ‘抱影’은 모두 고독한 모습을 의미한다. 이처럼 ‘伶僂’은 漢代부터 清代까지 예문이 보이는데 北大 고대한어 語

26) 清代 “當榘榘擊地以拜君.”(『堅瓠三集·化須疏』) 예문이 보인다.

料庫에 약 50여회 출현한다. 현대한어 語料庫에는 고문헌 인용을 제외하면 현대 문학작품에 4회 정도 출현하는데, 이는 '伶俖'이 漢代시기에 출현한 '孤獨'²⁷⁾와 南朝 시기 처음 예문이 보이는 '孤單'²⁸⁾ 등에게 밀려 현대로 오면서 사용량이 줄고 문어체의 형태로 문학작품 속에만 남아 간헐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伶俖'은 '孤獨', '孤單'과 함께 清代까지 사용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孤獨', '孤單'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어휘에 밀려 문어체로만 남아 일상 담화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소멸된 어휘로 볼 수 있다.

4. 나오기

본문에서는 『一切經音義』 속 일반어휘 중 현대로 오면서 소멸되거나 문어체 속에 남아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어휘를 중심으로 시대별 사용상황과 그 의미를 살펴 보았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 소멸되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어휘의 소멸원인을 살펴 한어어휘의 소멸 및 교체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어어휘는 생성-발전-소멸의 주기적 순환과 반복과정을 거치며 어휘의 유입과 유출을 통해 각 어휘의 의미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대별 어휘의 면모를 반영하는 어휘체계를 확립해나간다. 『一切經音義』 속에 보이는 일반어휘 중 현대에 이르러 소멸되거나 문어체 속에만 남아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어휘는 시기별 사용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어휘는 唐代이전부터 사용되어 『一切經音義』 편찬시기인 唐代를 중심으로 활발히 사용되다 현대로 오면서 소멸되기도 하고, 어떤 어휘는 唐代를 전후해 새롭게 생성되어 이 시기에 활발히 사용되다 후대로 오면서 소멸되거나 사용량이 감소하기도 한다.

『一切經音義』 속 어휘들이 시대를 거치면서 소멸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27) 漢代 “人情之所忽也，存乎孤獨。”『中論·法象』(사람의 마음이 소홀해지면 고독해진다.)

28) 南北朝時代 “父母死，孤單無親戚，丁氏收養之。”『南齊書·孝義傳』(부모가 죽고 외로이 친척이 없게 되자 정씨가 그를 거두어 길렀다.)

첫째, 어휘 구성 語素의 弱化에 따른 소멸을 볼 수 있다. 어휘를 구성하는 語素를 보면 다른 語素와 結合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語素가 있는 반면 結合력이 약한 語素가 있는데, 이러한 語素들은 자주 結合력이 강한 語素와의 자리 경쟁에서 밀려 후대로 오면서 사용량이 줄고 의미장에서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 예로 ‘沮壞’의 ‘沮’는 문헌상에 다른 語素와 結合되어 사용되는 용례가 적고 사용량도 많지 않아 結合력이 약한 語素로 볼 수 있다. ‘沮’는 結合력이 강한 ‘毀, 敗, 破’ 등에게 밀려 현대로 오면서 ‘沮壞’ 대신 ‘毀壞, 敗壞, 破壞’ 등의 어휘가 많이 사용된다.

둘째, 『一切經音義』 속 일부 어휘의 語素는 의미장 안에서 다른 語素와 結合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다른 語素와 結合된 어휘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一切經音義』 속 어휘는 점차 소실되는 경우이다. 예로 ‘諛諂’은 ‘아첨하다’ 의미장 안에서 각기 다른 語素와 結合하여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諛’는 ‘阿’와 結合하여 ‘阿諛’로, ‘諂’은 ‘媚’와 結合하여 ‘諂媚’로 사용되는데, ‘阿諛’와 ‘諂媚’ 모두 현대로 오면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첨하다’ 의미장 안에서 ‘諛諂’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셋째, 『一切經音義』 속 일부 어휘는 신생어휘에게 자리경쟁에서 밀리게 됨에 따라 현대로 오면서 소멸되어진다. 예로 ‘힘을 다하는 모양의 ‘勦勦’은 문헌상에 다양한 형태로 쓰이는데, 唐代 출현한 ‘兀兀’ 등에게 자리경쟁에서 밀리고 현대로 오면서 소실된다.

넷째, 『一切經音義』 속 일부 어휘는 의미장 안에서 경쟁어휘에게 밀려 현대한 어에는 문어체 형태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보인다. 예로 ‘伶儻’은 ‘고독하다, 외롭다’의 의미장 안에서 ‘孤獨’와 ‘孤單’ 어휘와 함께 清代까지 사용되었으나, 현대로 오면서 경쟁어휘인 ‘孤獨’와 ‘孤單’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문어체로만 남고 구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一切經音義』 속 어휘 중 현대에 이르러 소멸된 어휘의 사용 현황을 통해 한어 어휘장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어휘의 소멸 원인과 과정을 통해 한어 어휘의 변천맥락 또한 살펴볼 수 있다. 향후 『一切經音義』 속 계승어휘 및 변천어

휘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한어 어휘사 연구에 一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 徐時儀 校注 『一切經音義三種校本合刊』, 上海古籍出版社, 2012.
段玉裁〔清〕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95.
王啓興 校編 『全唐詩』, 湖北人民出版社, 2001.
沈 約 撰 『宋書』,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王念孫 撰 『廣雅疏證』, 濟南, 山東友誼書社, 1991.
黃信愛 「『一切經音義』 속 어휘의 변화 양상 연구」, 『中國學論叢』 제46집, 2015.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嶽麓書社, 1997.
『十三經注疏』, 中華書局, 2009.
『漢語大詞典』,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出版社.

본문에 인용된 예문 자료는 北京大學 中國言語學研究中心 古代漢語와 現代漢語 語料庫 (<http://ccl.pku.edu.cn>)에서 발췌한 것임.

〈Abstract〉

A Study on The Extinct Words of YiQieJingYinYi

Hwang, Shin-Ae

Buddhism which was introduced to china at the end of DongHan dynasty goes through the WeijnNanBeiChao era and was in its heyday during SuiTang era.

The work to translate Buddhist scripture written in Sanscrit into Chinese during SuiTang era was done.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A book of Buddhist phonology and meaning" was published to figure out the accurate phonology and meaning of the terms in the Buddhist books.

“A book of Buddhist phonology and meaning” is a dictionary of Buddhist with abundant vocabulary.

In the terms of the words in YiQieJingYinYi, we looked at the words that were actively used but are not used any more today, and we looked at the chronological approach to the usage of these words and the causes of the their extinction.

The reason why these words were extinct is as follows.

First, it was caused by the weakened morpheme of the words.

Second, some morphemes of the words in YiQieJingYinYi were often combined with other morphemes. In this case the combined words with other morphemes increased and the words in the YiQieJingYinYi gradually began to be lost.

Third, some of the words in YiQieJingYinYi began to be lost by the new words which was competitively coined in modern times.

Fourth, some of the words in YiQieJingYinYi remain in literary style in modern Chinese.

In the future, we will continue to do historical research on Chinese vocabulary through continuous study on the words in YiQieJingYinYi.

Key words: The extinct words, YiQieJingYinYi, Buddhism, morphemes, meaning

이 논문은 2018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18년 8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8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